꽃 피고 색다른 고구마

'먹어보구마, 즐겨보구마~'

농진청, 오늘부터 12일까지 '고구마의 재발견' 특별전시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구마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를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농업과학관 내 1층 전시관(농촌진흥청 별관)에서 연다.

전시회에서는 기능성이 뛰어난 고구마 품종들과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된다.

고구마 품종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부드러운 밤고구마 '진율미'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풍원미', 주황·보라 등 색다른 빛깔의 고구마, 꽃 피는 고구마도 선보인다.

또한 고구마 빵과 말랭이, 발효음료 등 가공제품과 군고구마를 맛보는 먹거리 행사와 △고구마 넝쿨로 터널 만들기 △고구마 지게 지기 △꽃 고구마 화분 만들기까지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관람은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주말(토요일·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 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063-238-1300) 또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061-453-2592)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노재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전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구마에 대한 정보에 깊이를 더해 앞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구마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고구마의 재발견' 포스터.

우리 식품가공기술로 '신남방정책' 구현한다

식품연, 필리핀에 기술 맞춤형 솔루션 제공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필리핀 식품기업의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은 양국 식품 산업의 상생 발전과 식품 가공, 기계 및 포장 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필리핀 식품기업을 상대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식품 위생 강화 등의 식품가공기술 기여를 통하여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연 전기홍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People), 평화(Peace), 그리고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과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후 필리핀의 식품가공기술 기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식품가공기술 관련 세미나 및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필리핀의 현지 애로기술 지원 및 지도사업을 통하여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식품 가공, 기계 및 포장재 생산 등과 관련한 국내 중소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산업통상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통한 '신남방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식품연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청 및 필리핀 과학기술부(ITDI)가 공동 참여한 이번 식품기술 지원사업은, 식품가공 위생 교육, 생산 기술 지원 및 신제품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식품연 연구자들이 현지에 파견,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관련 정부 및 관계자들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의 딤섬 제조업체(Fondre Flavor Dynamic)의 경우, 식품(연)의 관련 기술 전문가의 프로그램 지도에 따라 만두피 품질 개선 기술을 통해 30% 이상의 불량률 감소 및 15% 이상의 매출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 효모(이스트) 등 소재 수입을 통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인근 국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식품 가공기계 수출 및 식품 가공기술 라이센싱 사업은 필리핀 식품산업의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필리핀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탁 식품연 전략기술연구본부장은 "필리핀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의 세계적인 수출국가이며 건강 기능성 식품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생산되고 있다"며 "식품연의 축적된 영양분석 및 상품화 노하우가 접목될 경우, 필리핀의 농업과 식품 제조업간의 가치사슬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의 건강기능성 식품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공간정보연구원 전문 연구직 15일까지 모집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공간정보 정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전문 연구를 담당할 연구직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공간정보 제도 선진화와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정보 전문연구기관이다.

모집인원은 총 6명 규모이며 공간정보·경제·경영·법·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공간정보 전략분야, 위성측위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구축, 데이터융합처리를 수행할 공간정보 응용 총 세가지 세부분야로 나뉜다.

근무지는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이며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성검사·전문면접을 거쳐 올해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LX홈페이지(https://www.lx.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연구실적물 등과 함께 이메일(lx0202@lx.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교급식 관련기관, B2B 거래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AI를 통한 물가지수 서비스', '빅데이터를 통한 식재료 안전공급망 강화' 등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2009년 10월 28일 설립되어 2012년 거래금액 1조원 달성,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달성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기업 간 농수산물 거래를 중개하며 포스몰 등 신유통 플랫폼을 통해 농수산물 B2B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중고 90%가량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기관으로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영양사 대상 교육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병호 aT 사장은 "앞으로 사이버거래소는 농가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유통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워크숍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혁신가 176명을 대상으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청년혁신가 역량 강화 컨설팅 · 프로그램 운영

도-경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워크숍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도내 청년(예비)들을 취업하도록 돕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혁신가 176명을 대상으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청년혁신가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 및 업무 영역 컨설팅(사회적 기업, 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또한 친환경 캔들, 도마, 자이언트 플라워 제작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청년혁신가는 "이번 워크숍에서 평소 이해가지 않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우리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혁신가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가 조금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청년혁신가들과 소통하고, 내 손으로 직접 친환경 자작나무 도마를 만들며 스트레스가 해소됨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혁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북도 사회적경제와 청년들의 동반성장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을 독려했다.

한편, 경진원에서는 11월 초 도내 청년(만 18~39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입사를 위한 신규 청년혁신가 약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청년혁신가.kr)와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건협 전북도회, 익산국토관리청장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규현)과 간담회를 갖고, 위기에 빠진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회장은 "오래 기간 둔화된 건설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이 필요 없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근절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규현 청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회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역 건설업계의 균형 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중국 인바운드 유치 위해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이스타항공이 5일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2019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참가한다.

2019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 시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제품 소개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급 박람회다. 5일부터 10일까지 총 6일간 상하이 개최되며, 올해부터 외항사도 초청되어 진행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항공사로는 유일하게 참가하며 서비스무역관에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는 현지 여행사, 기업과 관람객에게 노선홍보 활동과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 할인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인센티브 및 인바운드 고객 유치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기존 일본노선에 치우쳐 있는 노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중국, 대만, 마카오 등 7개 신규 동북아 노선에 취항하며 노선을 다변화 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타이베이, 화롄 노선에 취항하며 지방공항수요 확대에도 나선다.

/김윤상 기자

신협보험 계약자 특별이벤트

신협, 내달 31일까지 신규 가입자 인덕션 제공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신협 보험(공제)을 가입하는 신규계약자에게 인덕션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신협은 12월 31일까지 '어부바신협참사랑운전자보험'과 '무배당어부바신협건강보험' 등 19개의 신협의 이벤트 대상 상품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 중 ▲보장성 보험은 월납 공제료 3만원 이상 ▲저축성 보험은 월납 공제료 10만원 이상 또는 거치형 1천만 원 이상 가입 한 경우 계약 건당 계약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3.7cm 초슬림 슈미드 인덕션은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계약자 중 정상유지 건에 한해 2020년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김택형 영업지원팀장은 "신협의 좋은 보험을 알리는 동시에 가입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서민과 함께하는 신협보험에 가입하고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혁신성장 초석 마련 상호협력

중기중앙회, 전자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자부품연구원(원장 김영삼)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초석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공동 기술기획·개발,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해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KETI 핵심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한 행사 공동 지원 ▲스마트공장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설명회, 기술매치메이킹 행사 등의 공동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은 보유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기술검토 및 자문 등 기업의 기술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전자부품연구원과 함께 기술협력, 기술 애로해소를 도우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부품연구원 김영삼 원장은 "양 기관 협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